

<토론문>

: 환황해권 시대의 역사적 맥락과 현재적 의미 - ‘해양강국 백제’의 전통과 충남

강봉룡 (목포대 사학과, 도서문화연구원장)

- 2015년 5월 16일은 한국 해양사의 기념비적인 사건이 일어난 날이다. 당일 김승진 선장은 아라파니호를 앞세워 당진 왜목항에 입항했다. 2014년 10월 19일 왜목항을 출항한 지 210일만이였다. 그는 요트 아라파니호를 타고 단독, 무동력, 무기항, 무원조로 4만 1,900km에 달하는 세계의 바다를 일주한 것이다. 우리나라 최초, 세계 여섯 번째로 이룬 쾌거였다. 그간 잊혀져온 충남의 해양혼을 일깨워준 순간이였다.
- 충남은 2012년 12월에 내포신도시로 도청을 옮김으로써 ‘해양도’로서의 방향을 틀었다. 내포는 예산, 당진, 서산, 홍성 등지의 바닷가 마을들을 통칭하는 이름이다. 남으로 보령과 서천으로 이어지고 북으로 아산을 거쳐 경기도 평택으로 통한다. 바다가 육지 깊숙이 침투하여 내륙에 포구를 형성했다 하여 내포라 일컬어졌다 하나, 근대 이래의 대규모 간척에 의해 내포의 옛 정취는 많이 손상되였다. 그러나 육지와 바다가 지그재그로 교차되던 내포의 그 상징성만은 사라지지 않았던지, 내포신도시와 아라파니호가 내포의 바다에 대한 옛 추억을 오늘에 되살려주고 있다.
- 윤용혁 선생님은 ‘백제-통일신라-고려-조선’으로 이어온 충남 해양사의 큰 흐름을 짚으면서 ‘환황해권’을 향한 충남의 미래 비전을 제안했다. 그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하면서 여기에서는 윤선생님이 생략한 주요 사안을 몇 가지 추가하면서, 해양 충남의 미래를 상상해 보고자 한다.
- 먼저 충남 해양사의 역사는 백제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 마한에서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한 54국의 맹주국이었던 목지국은 아산만에 등지를 틀고 북쪽의 낙랑·대방군과 해양 패권을 다투기도 했다. 3세기 중반경에 목지국이 마한의 여러 나라를 규합하여 대방군의 요새인 기리영에 대한 선제 타격에 나선 것이 그 예이다.
- 충남이 역사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된 것은 아무래도 475년 백제의 웅진(공주) 천도에서 찾아야 할 것 같다. 그러나 고구려의 공격에 떠밀려 내

려운 공주는 금강의 비교적 깊숙한 곳에 위치하여 해양 침략세력을 차단하려는 수세적 입장이 강했던 반면에, 성왕이 538년에 비교적 하류에 위치하여 대형 선박이 드나들 수 있는 사비(부여)로 천도한 것은 해양을 향한 공세적 진출정책을 표명한 것이었다. 이러한 백제의 적극적 해양정책은 해양불교신앙의 일종인 서산와 태안의 마애불신앙으로 표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

- 이러한 충남의 해양전통은 통일신라, 고려시대로 이어져 윤선생님이 거론했듯이 충남이 국내외 해양교류의 교차점으로 기능하게 했으니, 영흥도를 포함한 내포 앞바다에서 출수된 다채로운 해저유물들이 이를 증언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가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까지 1천년 조운의 요지로 계속 이어졌다는 윤선생님의 지적은 인상적이다.
- 결론적으로 윤선생님은 근대에 들어 오랫동안 충남이 바다를 잇고 지내면서 내륙 지향성을 갖게 된 측면이 있음을 지적하고 다시금 환황해권으로 응비할 해양 충남의 비전을 환기하면서, 2012년에 도청을 내포신도시로 이전한 것을 중대 계기로 삼자고 제안하고 있다. 여기에 올해 아라파니호의 쾌거가 해양 충남의 가능성을 ‘충격적’으로 일깨워줬다는 점 역시 떠올릴 필요가 있겠다.
- 이제 ‘차분하게’ 준비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윤교수님이 2016년 유치를 제안한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이 주축이 되어 2009년에 목포에서 처음 시작한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는 삼척(2회), 여수(3회), 여수(4회), 경주(5회)를 순회하면서 매회 200명이 육박하는 다양한 분야의 해양문화학자들이 해양학을 논하는 해양학술난장의 자리로 자리매김하였다. 올해 6회 대회는 8월에 다시 목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내년 2016년에 충남에서 7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를 개최하게 되면 해양 충남을 ‘차분하게’ 음미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